



1. 세계인쇄문화연표를 관람하며 미소짓는 어린이들.
2. 성황을 이룬 '직지' 등 시연회
3. 한글 미래 서체에 많은 관심을 보인 어린이들.
4. 고서를 통한 산 교육의 장

와~ 이거

인쇄역사문화관 유치원생 80여명 단체관람

서울시 영등포 소재 미예뜰 유아스쿨(원장 박임성) 어린이들이 인쇄문화회관 5층에 조성된 인쇄역사문화관을 방문해 우리 민족 고유의 활자 역사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 행사는 유아스쿨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활자 역사의 경험

10월22일 인쇄역사문화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은 총 83명(만 4~7세)으로 10월9일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의 의미를 느끼게 해 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어린이들은 세계인쇄문화연표를 통해 전 세계의 인쇄문화를 관람한 후 목활자 등 제작 도구들과 금속활자 이전의 문자관을 통해 생생한 역사 체험을 경험했다. 또한 고려~조선시대까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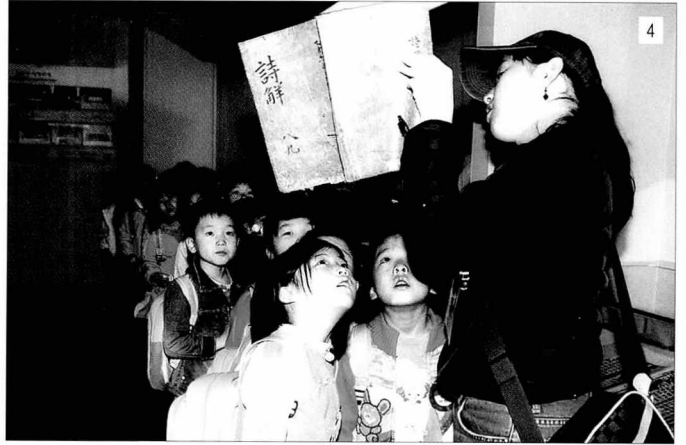
활자 조형물은 옛 선인들의 활자 문화를 접할 기회가 흔치 않았던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임성(41) 원장은 이에 대해 “옛 성인들의 활자에 대한 열의를 어린이들이 직접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 의미 깊은 방문이 됐다”라며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자료들이 특히 눈에 잘 들어온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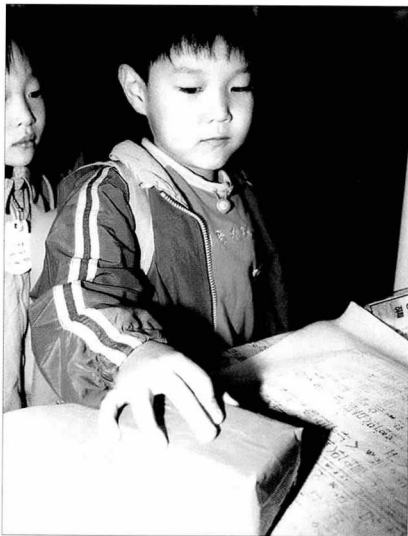
터넷이라는 그늘 속에 소중함을 잃어 버린 한글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들은 특히 윤디자인에서 개발한 벌꿀 모양의 한글 미래 서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시연실에 마련된 '직지' 등 금속활자를 직접 체험하고 인출본을 서로 비교해 보는 등 이채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

민족 고유의 얼이 담긴 '직지'를 직접 시연한 한 어린이는 “TV 프로그램



우리나라 거예요?



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시연회를 직접 경험해 보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라며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에 대해 많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시간여의 관람과 시연회가 끝난 후 인쇄역사문화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은 4층 회의실에서 다과회 및 점심식사 시간을 갖고 우수한 민족 문화에 대

한 소감을 작성하는 시간을 보냈다.

우수한 활자 역사를 전도

인쇄역사문화관은 지난해 3월부터 조성 공사를 시작한 이후 9개월이 지난 12월15일 개관했다. 문화관광부(3억), 민자 유치금(3억) 등 총 6억원이 투입돼 100여평 규모로 조성된 인쇄역사문화관은 세계 인쇄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표를 비롯해 ▲고서체 협관 ▲디오라마관 ▲금속활자이전 문자관 ▲고활자·고서관 ▲인쇄기기관 ▲시연실 ▲자료 및 영상실로 구성돼 있다.

전시 품목별로는 재미자 등 활자 56판, 고서 및 영인본 90여권, 활자 이전의 자료 15점, 금속활자 제작공정 디오라마 1세트, 활자 부조물 52개, 활자책 1세트, 미래의 서체 1세트를 비롯해 조판·인출·계책도구 등 30여종이 구비돼 있다. 또한 인쇄기기관에

는 자모조각기에서 디지털인쇄기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인쇄기 13점이 모형으로 전시돼 있으며 한지제작·금속 활자·목판 도구 1세트가 보유돼 있다.

전문가와 학생들을 위해 시·청각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 및 영상실에는 국내외 인쇄관련 서적 600여권이 소장돼 있다. 이밖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활자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단 1개만 소장돼 있는 고려시대 '복' 자도 복원돼 전시되고 있다.

각종 희귀한 인쇄 자료를 발굴, 육성하고 인쇄의 발자취를 남겨두는 자료실로 조성된 인쇄역사문화관의 개관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정오 12시, 일요일은 휴관한다.

단체관람과 자료열람은 무료이며 대한인쇄문화협회 사무국으로 신청한 후 관람 시간을 정하고 방문하면 된다. (문의: 02-335-5881) <장홍일 기자>